

# '2025 장성 방문의 해' 운영...1천만 관광시대 연다

## 양대 체전 개최 효과 극대화...관광객 체감 콘텐츠 구축 명품숲·스탬프 투어·관광택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장성군이 2025년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해 1천만 관광 시대에 도전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이 중점을 둔 부분은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구축'이다.

먼저 축령산 방문을 유도하는 '명품숲 투어 어게인'이 주목된다. 자가용을 이용해 축령산을 찾은 관광객이 완주를 하지 못한 채 주차지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데서 착안했다.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택시가 산행 종착지에서 기다리고 있다

가 관광객을 태우고 주차 지점까지 데려다준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이 라면 등산코스 도착, 읍시까지 복귀 모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이 전액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라 이용 부담도 없다.

택시를 타고 장성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택시' 프로그램도 관심을 끈다. 장성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5시간 코스를 운영하며, 이용료의 50%를 군이 지원한다.

전남도와 연계한 여행지원도 눈여겨

볼만하다.

2인 1팀이 장성에서 최대 6박7일간 여행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비, 보험비 등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장성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사업비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장성호 수변길, 흥길동 데마파크, 백양사, 필암서원 등 장성 '핫플레이스'를 직접 걸으며 스탬프를 모으는 '스탬프 투어', '구석구석 라이브 버스킹', 황룡정원 '불꽃놀이 라이브쇼' 등이 연중 펼쳐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이 다르지만 대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내년도 주요 행사인 ▲제64회 전남제전(4월18~21일) ▲제33회 전남장애인체

전(4월30일~5월2일) ▲길동무 꽃길축제(5월10~11일) ▲황룡강 가을꽃축제(10월18~20일)에 발맞춰 4·5·10월 '장성 방문의 달'도 집중 운영한다. 다양한 참여 이벤트와 보물찾기 행사가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이 밖에 포어·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전국단위 박람회·축제장 홍보관 운영, 관광상품 개발, SNS(에스엔에스) 서포터즈 활동 등 '장성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최초로 양대체전이 열리는 2025년은 '1천만 관광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군이 2025년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 개최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사진은 주요 프로그램인 '명품숲 투어 어게인'이 진행되는 축령산 편백숲. <장성군 제공>

# "섬박람회 성공개최" 여수시, 2026년도 국비 확보 '시동'

## 신규 32건·계속 61건 등 총 93건...사업 추진 계획 논의 내년 중앙부처 방문 선제 대응...미반영 사업 확보 사활

여수시가 2026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고 확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보고회는 최정기 여수시부시장 주재로 사업 부서장 등이 참석해 산업·에너지, 문화·관광, 해양·수산 등 신규 사업 32건과 계속사업 61건 등 총 93건, 5천585억 원에 대한 추진 계획과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미래 성장 동력,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내년 신규 건의사업 구상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모아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먼저 산업·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으

로는 ▲CCU(탄소 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추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선박형 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 ▲전남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 항공유 생산 기술개발 등을 발굴했다.

해양·수산 분야는 ▲여수시 조식소 집적화 대상지 준설사업 ▲소장지구 연안정비사업 ▲여수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국동항 정비공사 ▲중양동·국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여수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문화·관광, 해양·수산 등 총 93건의 사업 추진계획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 증액 단계에서 어렵게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단지 구축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대로3·26호선) 개설 ▲삼산면 장촌·죽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사업에 대해서도 미반영 사유 분석과 논리 보강을 통

해 국비 확보 재도전에 나선다.

최정기 부시장은 "7천600여원의 역대 최대 국고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전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과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재정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 '곡성어린이도서관' 올해 빛낸 최우수 시책

## 郡 우수시책 13건 선정...군민 체감형 중심 지속 추진

곡성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군정을 빛낸 우수시책에 곡성어린이도서관을 최우수 시책으로 뽑았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39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내외부 심사와 2차 군민 및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13개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시책을 중심으로 군민 삶의 질 증대, 군민 안전과 민생 안정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 시책으로는 '우리가족은 곡성어린이도서관에 놀러갑니다'가 선정됐다. 지난 4월12일 개관한 곡성어린이도서관은 음악, 휴식, 만남이 있는 지역 대표 복합 문화 공유공간으로 ICT 실감형 동화체험 구축,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2만5천여명이 방문하며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 선정된 우수시책은 ▲일회

용품 zero! 곡성세계장미축제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추진 ▲전국최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학, 격려금 지원제도 완성 ▲간강과 힐링이 함께하는 걷기 명소 '독방생태공원황도길' ▲전남 최초 초등학생 전 학년 치과 의료비 지원 ▲곡성물, 농가와 업체의 든든한 지원군 ▲문화관광형 시장! 곡성전통시장 직적폭포 야시장 개최 ▲곡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만민 안전과 민생 안정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곡성군은 우수 시책을 발굴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태 곡성군수는 "새로운 곡성 실현을 위해 군민과 적극 소통하며 곡성군민의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며 "군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담양군, 민원 처리 우수부서·직원 선정

## 국민신문고·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 등 포상

담양군은 "최근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한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담양군은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 행

정서비스 개선 문화를 장려하고자 민원 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분야에서는 지난 6개월 간의 민원에 대해 ▲처리 기한 준

수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 건수 ▲민원인 만족도 ▲신문고 민원 정책 질의응답 게시 개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서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공간재생과(최우수), 축산원예과(우수)가 선정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에서는 처리 기한 2일 이상인 단순·복합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기한에서 단축한 만큼 점수를 부여했다.

최우수상은 도시과 김선영, 우수상은 환경과 최경아, 장려상은 물순환사업소 방승현 직원이 선정됐으며, 연말에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효정 민원과장은 "군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부서와 직원을 발굴해 격려하고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개그맨 최홍림 등 10명, 고흥군 홍보대사 위촉

## 우주·드론·스마트팜 중심 군정 홍보 큰 역할 기대

고흥군은 30일 "지난 27일 국내 연예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가수과 개그맨 10명을 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물은 개그맨 최홍림과 가수 전영록, 정수라, 김용

임, 우연아, 김양, 현진우, 진이랑, 이미리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80·90년대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의 스타들이며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그맨 최홍림을 비롯한 10명은 개그맨과 가수로서 오랜 기간 연예계에 몸

담아 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고흥을 널리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에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석류, 김, 등 고흥의 풍부한 해산물과 고흥 3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최희환 기자

# 구례군, 공공심야약국 2곳 운영 내년부터 공휴일도 오후11시까지

구례군은 30일 "2025년 1월1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에 운영되며,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구례군 첫 공공심야약국은 구례읍 소재의 광주약국, 우리네은누리약국으로 전남도와 구례군의 지원을 받아 365일(연중무휴) 운영한다. 광주약국(구례읍 중앙로 36)은 수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문을 열며, 우리네은누리약국(구례읍 동편재길 31)은 수요일에만 운영한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의약품리팀(061-780-20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임종길 기자

# 순천시, '다섯째 다둥이' 가정 축하 방문

## 출산장려금 2천만원 지원...'저출산 상황 속 큰 경사'

순천시는 30일 "지난 27일 다섯째를 출산한 다둥이 가족을 방문해 축하와 함께 육아용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성탄절인 지난 27일 신대지구에서 거주하는 다둥이 가정에서 다섯째 아이가 태어났다.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에 있다.

다섯째를 출산한 다둥이 가정에 출생·양육·돌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안내했다. 순천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아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1천만원, 셋

째 1천500만원, 넷째 이상 2천만원 지원 ▲2025년부터 출생수당(월 20만원) ▲산후조리비용(100만원) ▲첫남아이용권(300만원)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한방침약지원(40만원) ▲아동수당(월10만원) ▲부모급여(100만원) 이 밖에 문화·복지혜택 25종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로 다가오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섯째 아 탄생은 크나큰 경사"라며 "모든 출산 가정이 축복받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순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